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변화

林 容 漢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1. 머리 말
2. 고려 후기 海防論의 등장과 그 배경
3. 고려 수군의 전통적 전술과 그 한계
4. 공민왕 후반의 수군증강 사업과 戰術 변화
5. 맺 음 말

1. 머리 말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 행해진 군제 개혁에서 커다란 변화의 하나가 수군의 개혁이다. 14세기 들어 극심한 왜구의 침입에 시달리던 고려는 수군을 양성하여 바다에서 왜구를 격퇴한다는 海防戰術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대대적인 수군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조선으로 이어져 수군의 지휘체제와 군역제, 병선 건조와 개량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새로운 수군체제의 성립은 전체 국방체제와 군사제도를 변화시킨 커다란 작업이었다. 조선 전기의 경우 수군은 전체 지방군의 70%를 차지했고, 군

역제, 신분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임진왜란 시기 조선 수군의 승리도 이 시기에 행한 개혁과 수군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누적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고려 후기 수군제의 개혁의 의미를 전기 수군제도의 재건과정으로 국한하고, 이 시기에 이루어진 수군제 개혁의 특성과 군제사적 의미, 나아가 고려 수군제와 조선 수군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소홀해 지는 경향이 발생했다.¹⁾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지금까지 연구에서 고려 시기 수군의 전술적 특징과 변화과정, 즉 수군의 질적 변화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시기의 군사제도의 변화, 특히 14, 15세기의 수군제 개혁 같은 거대한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전술과 군사기술 상의 변화를 빼놓고 고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어떤 시기이든 그 시기의 군제는 전술 및 무기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기 수군전술의 변화와 관련하여 화약 제조법의 발견으로 화약무기가 새로이 도입되었던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기 화기가 과연 수군의 전력향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으며, 그것이 군제와 전술상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최무선이 만들었다는 화기의 종류나 화기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역시 지금까지 연구가 주로 화기 자체의 성능과 역할 자체에만 주목했을 뿐, 화기의 기능과 역할을 수군의 편제나 전술과 관련시켜 고찰하지 못

1) 수군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陸軍本部, 『韓國軍制史(朝鮮前期編)』,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소, 1977; 李載鸞, 『朝鮮前期의 水軍』, 『한국사연구』 5, 1970(『조선시대사학회사연구』, 一潮閣); 張學根, 『朝鮮時代海洋防衛史』, 創美社, 1988, 『朝鮮前期水軍萬戶考』, 『海土論文集』 26, 1987. 12; 方相鉉, 1991, 『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盧永九, 『朝鮮初期 水軍과 海領職의 變化』, 『韓國史論』 33; 權寧國, 『高麗後期 軍事制度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1995.

이상의 연구는 크게 제도사적 입장과 사회사적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로는 수군의 재건과정, 지휘체제와 관직에 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후자의 연구는 주로 수군의 군역, 사회적 신분, 고역화, 세습화 과정에 관심을 보여 왔다.

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점에 주목하여 14, 15세기 수군개혁의 기초가 된 전술적 내용과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려의 전통적 해전전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14세기 왜구의 침공에 대처하는 데에 어떤 한계를 지녔는지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체제가 새로이 개발되었으며 화기를 포함한 새로운 전술체제가 고려말과 조선시대 수군제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고려 후기 海防論의 등장과 그 배경

고려후기의 수군 재건사업의 동기는 격화된 왜구의 침입이었다. 『고려사』에서는 그 기점을 1350년(충정왕 2년)으로 잡는다.²⁾ 왜구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 시기 왜구는 해적집단의 수준을 벗어난 사실상 군사적 침공이었다.³⁾

이 같은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고려는 처음에는 육지에서의 방어라는 소극적인 전술로 대응하다가 1352년(공민왕 1)에 올린 李穡의 상소, 1375년(공민왕 22) 禹玄寶 등의 상소를 계기로 바다에서 왜구를 격퇴한다는 海防戰術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 海防論이 14~15세기 수군 재건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다.⁴⁾

이 같은 해석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海防戰術이 과연 李穡

2) “二月 倭寇固城竹林巨濟 合浦千戶崔禪 都領梁瑄等 戰破之 斬獲三百餘級 倭寇之侵始此”, 『고려사』 권37, 세가 37, 충정왕 2년 2월.

3) 羅鍾宇, 1994,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4) 陸軍本部, 『韓國軍制史(朝鮮前期編)』, p. 107, 權寧國, 「앞의 글」, pp. 132~133.

이 창안한 혹은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전술개념이냐는 것이다. 바다에서든 땅에서든 기동력을 지니고 움직이는 적을 고정진지에서 경계와 수비만으로 막아내기란 불가능하다. 또 이런 방식으로 각지를 방어하려면 24시간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병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대신, 적의 기습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기사는 이런 사정을 잘 말해 준다.

그 防戍하는 곳이 먼데는 거리가 5·60리가 되고 가까운데도 2·30리 이내는 없으니 적이 가히 이로 말미암아 들어와 노략질할 수 있으며 연해 군현의 촌락의 백성들은 혹은 드문드문 혹은 밀집하여 각처에 흩어져 사는데 저 도적이 많으면 千百으로 패를 짓고 적으면 什伍로 隊를 지어 요망하고 괴이한 모책을 꾸미고 있음을 말로써 다할 수 없습니다. 청명한 낮에는 그 래도 그 오는 자취를 엿보아 그 많고 적음을 건주어 경비할 수 있으나 어두운 밤에는 먼데까지를 살펴볼 수 없는지라 때로 우리의 뜻하지 않은 곳으로 나와 함부로 덤뵙니다. 수가 많으면 허세를 부려 이리저리 교란하여 우리 兵勢가 나누어짐을 기다려 가만히 습격하여 오는데 혹은 防戍를 버리고 바로 民家를 습격하여 오고 혹은 민가를 그만두고 먼저 防戍를 습격하여 오며, 적으면 미리 간첩을 보내어 그 부유한 집을 정탐하고 가만히 약탈하여 관병이 알고 추격하여 올 무렵에는 적은 이미 가득 싣고 멀리 달아난 뒤입니다. 이에 男丁을 더하여 뽑으면 곧 백성은 이미 쇠잔하여지고 도 적은 이미 가버리는데, 그 돌려보낼 때에 미처서는 백성이 겨우 떠나자 도적이 다시 오는 고로 백성은 휴식할 때를 얻지 못하고 군사는 用兵할 기회를 얻지 못하나이다.⁵⁾

더욱이 왜구의 주목표가 육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해적의 주요목표의 하나가 조운선이었다.⁶⁾ 14세기에는 조운선의 약탈도 격심해

5) 『고려사』 권112, 열전 25, 宰臣, 衡長壽.

6) 『고려사』 권35, 충숙왕 1년 6월 정해.

져서 공민왕, 우왕 때는 세곡미가 오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으며,⁷⁾ 전국적으로 漕倉을 이동시키고, 漕運을 陸運으로 대체하는 시도까지 한다.⁸⁾ 조운선의 보호는 수군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수군을 동원하여 바다에서 왜구를 격퇴해야 한다는 생각이 특별한 발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전부터 수군을 동원하여 해적을 소탕하는 사례는 『고려사』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⁹⁾

이런 사정에 대해 고려가 海防戰術의 효용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구가 해전에 익숙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싸우자는 전술을 채택한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겠다. 다음의 기록은 당시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공민왕 22년 5월에 간관 禹玄寶 등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적이 물에서 배를 잘 몰므로 물에서 싸워서는 안 되는데 만약 전함을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 백성들을 거듭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의 적을 육지 싸움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¹⁰⁾

하지만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적이 물에서 배를 잘 몰므로 물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군의 장기는 단병접전으로 육전에서는 더욱 강했다. 16세기에 왜구격퇴에 큰 공을 세운 明의 명장 戚繼光도 이 점은 인정하는 터였다. 그러므로 “왜적이 해전에 능하기 때문에”라는 말이 과연 해전보다는 육전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전술적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7) 『고려사』 권38, 공민왕 3년 3월 기유, 4년 4월 신사, 7년 3월 기유, 7월 임술.

8) 『고려사』 권43, 세가43, 공민왕 6, 공민왕 21년 2월 경진.

9) “己亥 東北面兵馬使奏 海賊寇掠烈山縣 遣兵馬錄事文揚烈 以戰艦二十三艘追 至椒子島 奮擊大敗之 斬九級 焚其部落屋舍三十餘所 毀戰艦八艘 獲兵器以百數 請賞其功 從之”,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1, 문종 4년 9월 기해, 이외 권7 세가7, 문종1, 문종 4년 11월 기유, 권22, 세가22, 고종1, 고종 13년 3월 등등.

10) 『고려사』 권83, 지37, 병3, 船軍.

게다가 禹玄寶가 “바다의 적을 육지에서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바와 같이 육지만을 지킨다는 것은 조운선의 안전을 포기하고, 왜구의 기습을 항상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려가 해방전술의 전술적 가치와 필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보다 분명한 증거는 1350년 경에 시작된 왜구의 침공에 대해 고려가 처음부터 해방전술로 대응하였다는 사실이다.

(충정왕 3년; 1351년) 무자일에 만호 元顥를 서북면에 파견하고 만호 印璫과 전 밀직 李權으로 西江에 주둔하여 倭寇를 방비하게 하였다. 기축일에 왜구가 또 남양부, 雙阜縣을 침범하였다. 계사일에 또 印璫 등에게 명령하여 바다로 가서 왜구를 잡으라고 하였더니 李權이 돌아와 왕에게 말하기를 “저는 장수가 아닐 뿐더러 또 녹봉도 받지 않고 있는 터이오니 명령을 거행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¹¹⁾

이 기사를 보면 왜구의 침공 초기부터 고려는 수군을 동원하여 왜구를 바다에서 격퇴하려고 하였다. 다만 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기사에서는 李權이 불충하게도 자신은 장수가 아니고 녹봉도 받지 않는, 즉 현직 관리도 아니라는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여 토벌에 실패했다고 서술했다. 그런데 李權의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전 해인 충정왕 2년에 경상·전라도 도지휘사로 왜구 방어를 담당한 적이 있었고,¹²⁾ 고려시대에 문관이 군 지휘관이 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으므로 ‘자신이 장수가 아니어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억지이자 변명이었다. 『고려사』의 서술

11) “戊子 遣萬戶元顥于西北面 令萬戶印璫 前密直李權 屯西江以備 己丑 倭又寇南陽府雙阜縣 癸巳 又命印璫等 入海捕倭 李權還白王曰 臣非將 又不食祿 不敢奉命 固辭不行”,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3년 8월 기축, 계사.

12) “庚辰 以延城君李權爲慶尙全羅道都指揮使 僉議參理柳濯爲全羅楊廣道都巡問使 以備倭”,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2년 3월 경인.

은 李權의 교만과 비겁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나중에 반역죄로 처단되는 趙日新의 당이었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교만하고, 무례했다고 해도 이 같은 명령불복종이 가능했던 데는 그럴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당시 고려 수군의 전력이 대규모의 왜적 함대와 해전을 벌일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는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침공한 왜구는 무려 130여척의 대부대였는데,¹³⁾ 이 시기의 기록을 보면 고려의 정예 함대는 겨우 수십 척에 불과했다.

특히 다음 해인 공민왕 원년 3월에 공민왕은 金暉南을 捕倭使로 임명하여 수군을 출동시켰는데, 김휘남이 거느린 배는 겨우 25척이었다. 더욱이 그는 지금의 아산만 입구에 있는 楓島에서 자신의 함대보다 적은 왜선 20척과 遭遇했지만, 싸우지도 않고 후퇴했으며, 며칠 후 더욱 증강된 왜구의 함대가 몰려오자 김휘남은 해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서강으로 후퇴하였다. 고려는 어쩔 수 없이 육군인 忽赤와 頡兵을 동원하여 개경과 교동을 방어하게 하였다.¹⁴⁾

이외에도 고려가 해방전술로 대응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병인일에 왜적이 전라도 茅頭梁에 침입하였는데 知益州事 金輝가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적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沃溝監務 鄭子龍이 앉아 머무적거리면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杖을 치고 突山の 烽率로 유배했다.¹⁵⁾

13) “秋八月 丙戌 倭船一百三十艘 寇紫燕三木二島 焚廬舍殆盡”, 『고려사』 권37, 세기37, 충정왕 3년 8월 병술.

14) “捕倭使金暉南 以戰艦二十五艘禦倭 至楓島遇賊船二十艘 不戰而退 至喬桐 又望見賊船甚盛 還西江請濟師 (중략) 己未 倭船大至 金暉南兵少 不能敵 退次西江告急 調發諸領兵及忽赤 分遣西江甲山喬桐以備之 婦女闌街痛哭 都城大駭”, 『고려사』 권38, 세기38, 공민왕 원년 3월 계축, 기미.

15) “倭寇全羅道茅頭梁 知益州事金輝領舟師擊之不克 沃溝監務鄭子龍 坐逗遛不進 杖配突山烽卒”, 『고려사』 권38, 세기38, 공민왕 원년 6월 병신.

8월에는 만호 印璫을 捕倭使로 삼아 금군과 서강과 교동의 수군 1천명을 주었으나 그도 방어만할 뿐 나가 싸우지 않았다.¹⁶⁾

이상의 사례는 왜구의 침공 초기에 고려는 수군을 출진시켜 왜구 격파를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군은 왜군의 위세에 눌려 아예 출전을 하지 못하거나 번번이 패배하고 말았다. 이는 고려가 해방전술을 생각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군의 전력이 약하여 어쩔 수 없이 육지방어전술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육지방어전술이란 고려가 해방론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채택한 전술이 아니라 왜구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을 포기한 결과였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海防戰術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었다고 이해해 온 李穡의 상소도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공민왕 원년(1352년)에 李穡이 服中에 있으면서 상서하였다. (중략) 근년에 왜적이 우리 강토로 침범해 전하께서 끊임없이 걱정하시게 됩니다. 물론 귀족 대신들과 덕망 있는 원로들이 상호 협의해 그 대책을 타당하게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중에 바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민간 사람들과 신중히 의논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대책으로는 두 가지 밖에 없으니 그 하나는 육지에서의 수비요 또 하나는 해상의 전투입니다.¹⁷⁾

이 상소는 李穡이 부친 李穀의 상을 위해 고향 한산에 거주하던 중에 저술한 것이다. 李穀은 1351년 정월에 사망했는데, 그 해 8월에 왜구의 침입과 李權 사건이 있었고, 다음 해에 捕倭使 김휘남이 패해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李穡의 고향 한산은 충청도 서해안에 위치한 해안 고을이었으므로

16) “捕倭使印璫 帥禁軍及東西江喬桐水手一千人禦倭 以逗遛不進 下璫獄”, 『고려사』 권38, 세가38, 공민왕 원년 8월 정묘.

17) “恭愍元年 穡服中上書曰 (중략) 近年倭寇侵疆至貽 聖上宵旰之憂 世臣老德相與謀 猷其所以處之方 俱得其要. 然臣以父憂居濱海之地 謀於野者熟矣 今之爲計不過有二 曰陸守曰海戰”, 『고려사』 권115, 열전28, 李穡.

이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충격과 공포도 그만큼 높았을 것이고, 그것이 李穡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왜구방어책을 상소하게 된 배경이었을 것이다.

李穡 상소의 주안점은 해방론의 제기가 아니라 아무리 적이 강하다고 해도 왜구는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는 당위론이었다. 李穡이 “현재의 대책은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하고 그 두 방안으로 陸防과 海防이 아니라 육지에서 수비와 해상에서의 전투(공격)로 대비시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李穡은 육전을 통한 왜구의 격퇴라는 방안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이는 육방전술이란 왜구를 물리치는 정책이 아니라 해안주민들을 상시적인 습격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수세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육방론의 한계에 대해서는 앞서 인용한 偁長壽의 상소가 잘 묘사하고 있지만, 왜구는 배를 이용하여 움직이다가 빈틈을 노려 기습하고 도주하였다. 육지의 수비군이 전 해안을 감찰 수도 없고, 왜구의 습격을 포착했다고 해도 뒤늦게 출동할 수 밖에 없는 고려군이 육지에서 포착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이때부터 왜구는 5천에서 몇 만을 헤아리는 대부대로 쳐들어오기도 했다. 이런 규모의 적에 대해 군현단위의 수비병이나 파수병으로는 대적할 수 없었다. 이들과 싸우려면 군현 단위 규모를 넘어선 대규모 부대를 편성해야 했다. 대부대를 편성하려면 병력을 집중시켜야 하고, 그러면 방어의 빈공간은 더욱 많이 생긴다. 결국 병력을 분산하면 각개격파되고, 집중하면 방어망이 허소해지는 대책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것이 육방론이 방어론일 수가 없는 이유였다.

李穡이 주장한 海防論은 이같은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李穡만이 아니라 당시의 관료나 전략가들, 심지어는 李穡이 만나보았다는 해안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해방전술이 왜구 격퇴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당시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방정책을 위해 수군재건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무려 20여년이 걸린 사유를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현실적이고 전술적인 요인 속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3. 고려 수군의 전통적 전술과 그 한계

(1) 고려의 전통적 해전전술과 왜군과의 전투

고려 초기에 수군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후삼국 쟁패기에 보여준 왕건의 활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왕건은 함대를 건조하여 나주를 정복했고, 후백제 수군과의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후백제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후 몽고전쟁기까지도 고려 수군은 지속적인 활동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려의 전통적인 해전방식과 전술, 전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아래의 기사가 고려 수군의 무기와 전투방식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사료이다.

5월 중순 무렵 고려국의 병선 수백척이 적(여진 해적)을 습격했다. 이에 해적들이 힘을 다해 싸웠으나 고려군의 기세가 맹렬하니 감히 상대가 되지 않았다. 고려의 병선은 선체가 크고 높고 병장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배를 뒤집고 적을 죽이는데 적들이 그 맹렬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포로가 된 자들도 배 안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石女 등도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표류하였다. 이에 전투는 자세히 보지 못했다. 얼마 후 고려의 전함에 구조되었다. ……

구조된 배 안을 보니 (선체가) 광대하기가 다른 배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2층으로 나뉘어 상층에는 노를 세우고, 좌우에 각각 4개의 枝가 있고, 別所에는 노를 짓는 수부 5, 6인이 있었다. 所所는 병사 20여명 정도가 들어가는 넓이인데, 이곳에는 노를 길어 놓지 않았다. 또 한쪽 방향에는 7, 8개의 枝가 있었다. 선체에는 철로 만든 衝角이 있었는데 적선과 충돌하여 파괴하는 장치 같았다. 배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철로 만든 갑주와 크고 작은 鎗과 熊手 등이었다. 병사는 각기 전문화된 무기를 들고

있었고, 또 큰 돌을 두어 적선을 파괴하는데 사용했다. 다른 배들도 장대하
기가 이와 같았다.¹⁸⁾

이 기사는 고려 현종 10년 여진족 해적에게 납치되었다가 고려 수군에게
구출된 일본 여인 石女 등이 일본에 돌아와 그들이 본 고려 수군의 해전양
상을 기술한 기록이다. 이 전투는 꽤 큰 해전이어서 『고려사』에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¹⁹⁾

이 사료에 의하면 고려군은 여진뿐만 아니라 일본측에서 보아도 꽤 큰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묘사로 보아 이 선은 樓船이며, 갑판 아래는 이중
으로 구성되거나 혹은 상갑판과 하갑판이 분리되어 노를 짓는 水夫를 위한
공간과 전투병의 승선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 같다.

선체 외곽에는 衝角을 장치하고, 전투병들이 방마다 배치되어 있었다. 전
투병들은 갑주, 鉞, 熊手 등으로 무장하고, 구획된 공간에 배치되었으며,
각기 무기에 따라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다. 이는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적인 전투를 진행하기 위한 배치였다. 또한 적선 파괴용의 큰 돌도 적
재하고 있었는데, 대형 병선이므로 투석기나 대형노 등의 기계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도 화포를 적재하기 전에는 전함에 투석기
를 적재한 사례가 있다.

화포가 발명되기 이전에 세계의 모든 전투는 육상전과 같은 백병전으로
수행되었다. 백병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衝角(ram)으로 배를 파괴하는 전술

18) “五月中旬之比 高麗國兵船數百艘 襲來擊敵 爰賊人等勵力雖合戰 依高麗之勢猛 無敢相敵之
者 卽其高麗國船之體高大 兵仗多儲 覆船煞人 賊徒不堪彼猛 船中煞害所虜之人等 或又入海
石女等同又被入海浮浪 仍合戰案內 不能見給 無機有高麗船扶了… 但見被救乘船之內 廣大
不似例船 口造 二重 上立櫓 左右各四枝 別所漕之水手五六人 所”之二十餘人許 不懸織
又一方七八枝也 船面似鐵造角 令衝破賊船之料也 船中諸雜具 鐵甲冑 大小鉞 熊手等也 兵
士面面 各各執特之 又入大石打破賊船 又他船長大已以前前”, 『寬仁 三年(고려 顯宗 10年)
7月 十三日 丙藏石女等解申進申文事』(張東翼, 2004, 『日本高中世高麗資料研究』 서울대학
교출판부, p. 88).

19) 『고려사』, 현종 10년 4월 병진.

과 보병이 적선에 올라다 백병전을 벌이는 登船肉縛戰術(boarding), 배 간에 거리를 두고 활을 쏘아 적선을 제압하거나 불태우는 세 형태로 분류한다.²⁰⁾ 그러나 실전에서는 세 형태가 독립된 형태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충각 공격의 경우 배를 일거에 파괴하는 경우도 있지만 登船肉縛戰術의 일환으로 상대의 배를 기동불능으로 만들기 위한 경우도 많다.²¹⁾ 그 다음에는 배를 불태우거나 전투병이 登船하여 적을 살해한다. 적의 배가 아주 작거나 약해서 한번에 파괴하거나 뒤집어 버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충각전술은 아군의 배와 상대의 배를 함께 묶어 버리므로 상대보다 백병전에 약한 군대는 사용할 수가 없다. 화살공격과 단병접전전술 역시 상호보완적인 형태이다. 단병접전에 강한 일본군이 등선육박전술을 애호했다고 하지만 그들도 원거리 사격전을 병용했다.

다만 각국의 장기와 상황에 따라 각 전술의 비중과 조합, 운영하는 형태가 달라진다. 각국의 전술의 특징은 오히려 이런 면에서 주목해야 하는데, 고려 수군의 특징은 大船중심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石女의 전투묘사나 고려군에 큰 전함들이 여러 척이 있었다는 기술로 보아 고려군에서는 누선과 같은 대선의 전투에서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대선위주의 전술은 다수의 전투병을 밀집배치함으로써 일본이나 여진족 같이 무사 개개인의 전투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직적인 전투를 전개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고려군에게 적합한 전술이다. 충각 공격을 할 때도 고려군의 배가 크므로 양측의 배가 엉켜 백병전을 할 필요가 없다. 작은 여진의 배는 뒤집혀 버린다. 이 역시 石女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또한 대선은 포와 弩 같은 대형무기와 기기를 장치할 수 있다. 배가 크고 갑판이 높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며 사격하게 되므로 고려군의 장기인 弓 弩의 효율을 높이고, 다수의 병력을 밀집시켜 집중사격을 할 수 있게 하는

20) 金在權, 『한국의 배』, p.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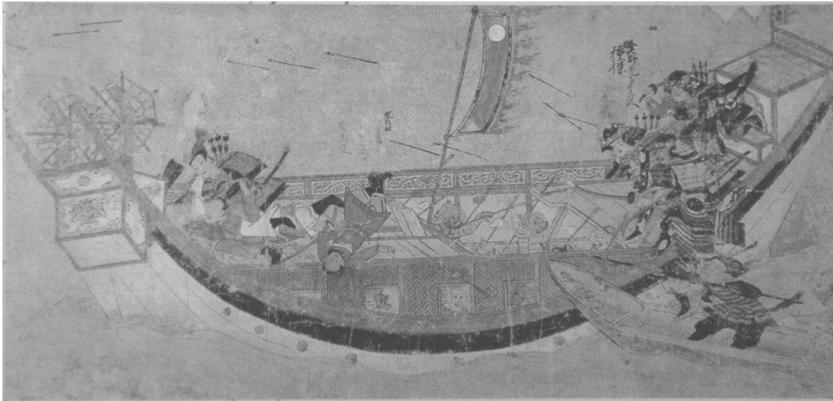
21) 충각전술의 고전인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전투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임진왜란 때도 왜군들은 뒤집히거나 화재 등으로 기동불능인 된 조선의 전함을 집중 공격하였다.

장점이 있다.

고려군의 장비와 배치에 대한 石女의 진술도 이 같은 요건과 부합한다. 다만 석녀의 진술에서는 弓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지만, 삼국시대부터의 전통이나 이후의 사실로 보아도 활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왜군은 소형 쾌속선을 이용한 登船肉縛戰術을 장기로 했다. 단병접전에 강하고, 14세기까지도 지역적, 부족적 체제로 갈라져 있던 일본은 이런 전술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고려와 중국의 대형전함과 싸울 때는 빠르고 작은 배를 타고 접근해서 선체에 구멍을 내거나 배로 뛰어 올라 돌격하는 전술을 선호했다.

이 전술의 기원은 이미 고려 중기까지로 올라간다. 12세기 원과 고려의 연합군이 일본에 침공했을 때 해상전투를 그린 부분이 『蒙古襲來繪詞』에 남아 있는데, 이 전투도에서 일본군은 작은 배를 타고 원 혹은 고려군의 대형전함에 접근해서 갈고리로 배를 고정시킨 후 배 안으로 돌격하는 장면이 있다. 공격 당하는 원의 함선은 상갑판과 하갑판의 이중구조이고, 벽에 창문을 내 사수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접근하는 왜의 쾌속선을 사격으로 제압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소형선을 이용한 登船肉縛戰術은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의 주공격 방식으로서 맹위를 떨쳤다.²²⁾ 물론 14세기의 왜구도 마찬가지였다.

신(曹錫文; 필자 주)이 듣건대 前朝(고려) 말기에 왜적이 침략하였으나 그때 兵器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솟제 대적하지를 못했고, 또 우리나라 兵船은 크고 느린데 왜선은 작고 가벼워 빠르기 때문에 언제나 갑자기 우리 배의 아래로 들어와서 배 밑바닥을 도끼로써 구멍을 뚫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군사의 실패가 많았다고 합니다.²³⁾

衝角과 砲를 갖춘 대형전함과 소형선박의 대결이라면 대선이 훨씬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중국의 병서에서도 樓船이 크고 위용이 있지만 실전에서는 느리고 둔해서 속도를 장기로 하는 소형선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²⁴⁾ 쾌속선을 이용한 왜구의 공격방식은 이런 약점을 노린 것이다.

왜구에 맞서는 고려군은 가능하면 왜구가 배에 접근하기 전에 적을 무력화시켜야 했다. 그러다 보니 사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금년 3월에 나의 신하인 예부상서 오계남을 탐라에 파견하여 그곳에서 마필을 싣고 귀국 서울에 가서 바치게 하였는데 왜적이 해상에 있었으므로 弓兵 4백 25명을 파견하여 이를 호송케 하였다.²⁵⁾

탐라에서 마필을 싣어 오는데, 왜구가 있으므로 특별히 궁병 425명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이는 왜구와의 전투에서 궁병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주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22) 이만웅, 2004, 『임진왜란해전사』, 청어람미디어, p. 46, p. 203.

23) 『成宗實錄』 卷47, 成宗 5年 9月 癸亥, 9:145.

24) 『武經總要前集』 卷11, 水戰.

25) 『고려사』 권43, 세가43, 공민왕6, 공민왕 21년 4월 임인.

하지만 대형 전함과 사격을 주축으로 하는 고려 수군의 전술은 두가지 약점이 있었다. 해상에서는 고려군의 장기인 사격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소형 쾌속선은 작고 빨라서 사격으로 제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육전에서는 지형과 성벽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고려의 장기인 기병이 부족한 단병접전 능력을 보완해 주지만, 해전에서는 이 부분이 결여되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사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배를 더 크게 하고, 선단을 밀집시킬 필요가 있었다. 가능한 한 전함에 많은 전투 병력을 태우고, 병선을 밀집시킴으로써 집중사격의 효과를 높이고, 기계를 장치하여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병접전 능력을 병력수로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중국의 병서에서도 지적되어 있다.²⁶⁾ 또한 배가 크고 높을수록 선체가 성벽역할을 하므로 사격에 유리하고 배 안으로 뛰어 들기도 더욱 어렵게 된다.

參贊官 徐厚가 아뢰었다. …… “소선은 다른 배를 쫓기에는 빠르지만 육박하여 싸우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며, 또 戰士를 많이 태우지 못하고 적군이 기어오르기도 쉽습니다. 만일 한 賊이 칼을 빼어들고 돌입하면 猛士가 많더라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大艦은 높고 가팔라서 기어오르기는 어렵게 되었고 내려다보며 制御하기에는 편리합니다. 이것이 모두 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므로 감히 아쉽니다.”²⁷⁾

이 기사는 조선 중종 때의 기록이지만 대선의 장점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고려시대에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또 하나의 결정적 약점을 야기한다. 이 전술은 사

26) 『武經總要』에서도 樓船은 크고 위용이 있지만 실전에서는 작고 빠른 배가 훨씬 유리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樓船에는 반드시 병사를 밀집시켜 태우고, 기계를 축적해야 하며 그래서 배를 더욱 크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武經總要前集』 卷11, 水戰).

27)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5월 戊午.

격을 위주로 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배의 크기는 물론이고, 전함과 병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 사격으로 적을 제압하려면 병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넓은 바다에서 상대의 기동을 제한하고, 사격의 효과를 높이려면 왜구의 돌격함대를 십자화망에 가둘 필요가 있었다.

최영이 榮山에서 열병하고 모든 장군들과 약속하였다. …… 만일 왜적과 만나면 좌우에서 협공할 것.²⁸⁾

이 기록은 공민왕 22년 탐라 정벌군이 출발할 때 최영이 내린 작전지침의 일부이다. 당시 원정군은 대선만 3백 14척에 병사 25,600명이라는 보기 드문 대군이었다.²⁹⁾ 최영은 혹 원정 중에 왜적을 만나면 좌우에서 협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좌우에서 치고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면충돌을 피하고 함대를 V자형으로 나누어 벌려 왜선을 포위, 공격하라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병력이 우월하고 원거리 공격을 선호하는 고려군에게 적합한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군의 배는 우리보다 빠르고 기동력이 좋다. 그러므로 고려군이 양쪽으로 전개했을 때 왜군이 한쪽 함대를 선택하여 집중 공격한다면 느린 고려군의 배로서는 2차적인 포위나 대응이 쉽지 않고, 각개격파를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전술을 사용하려면 좌우 함대가 각각 왜의 함대보다 병력에서 충분한 우위를 지녀야 한다.

즉 이런 전술은 병력과 고려군의 장기인 사격의 위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전술인 동시에 병력과 전함의 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밀집대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든 전술이다. 백병전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상대와 병력수가 비슷할 때 부대를 분할 전개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이기 때

28) 『고려사』 권113, 열전26, 최영.

29) 위의 주.

문이다.

(2) 14세기 왜구의 침공과 고려 수군의 패전

대선과 사격에 의존하는 고려군의 해전술은 14세기 이전 왜구가 소규모 해적단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실 소규모 해적일 때는 대선도 필요가 없었다. 아무리 고려군이 상대적으로 백병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규군이 소규모 해적을 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15세기 후반부터 왜구가 안정되고 소규모 해적단 정도나 출몰하게 되자 느린 大船 보다는 鼻居刀船 같은 소형 쾌속선의 효용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대선인 猛船을 줄이고 鼻居刀船으로 개조하자고 주장하는 장수도 있었다.³⁰⁾

그러나 14세기 후반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때의 왜구는 수천에서 만 단위의 병력일 때도 있었고, 전함의 수도 200척, 300척을 넘기기도 하였다.³¹⁾ 이들과의 전투는 해적단의 소탕이 아닌 양국의 정규전이었다. 그런데 고려의 전통적 전술로 해전을 전개하려면 대형함선이 필요하며,³²⁾ 왜구의 몇 배의 함대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민왕 초기 고려가 동원하는 함대는 20척에서 최대 80척 정도였는데, 이는 麗

30)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 6월 乙丑.

31) 『고려사』 권40, 공민왕 12년 4월 기미, 13년 3월 기사,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 22년 6월, 23년 4월.

32) 앞서 인용한 중종 18년의 논의에서 해안가에서 놓고 있는 猛船을 감축하고 비거도선을 양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소규모 왜적일 때는 소형선이 유용하지만 후 적의 대규모 침략이 있을 때는 사격과 방어에 유리하고 병력을 집중할 수 있는 대형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여 猛船 감축안은 부결되었다(『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 6월 乙丑). 이것은 조선 수군의 전술적 특성상 정규전에서는 대형선의 용도가 절대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 수군의 전술이 고려의 수군 전술과 같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조선에서는 화포가 개발되어 대형선의 용도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사격에 의지하는 전술이고 그러므로 병력을 집중해야 유리하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므로 이것은 고려 수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元 연합군의 일본 원정 때의 수에야 비할 수 없지만,³³⁾ 고려 초기의 왜적 소탕 기사에 등장하는 함선의 수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수치였다. 그러므로 고려 전기에는 수군이 강성했으나 원 간섭기 이후 고려의 수군이 거의 와해되었다는 설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듯 하다. 전면전을 대비한 규모는 아니었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해적의 출몰을 대비하고 격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1351년 이후에는 왜구가 100척, 200척 씩 함대를 결성하여 이들을 소탕하러 나간 고려 함대와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나 압도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물론 배는 크기와 종류가 다양해서 기록에 나타난 척수만으로 함대의 규모를 짐작하거나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왜구는 어차피 조선 위주의 공격전술을 사용했으므로 양측의 척수가 비슷하다면 고려의 전통적 전술로 감당하기에는 곤란한 규모였다.

게다가 왜구 역시 침공규모가 대규모화 하면서 대선에 의한 공격을 병용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왜구는 늘 선박의 규모에서 열세였다고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료상으로 보아도 이는 중대한 오류이다. 다만 왜구의 공격에서 소형선에 의한 등선육박전술의 비중이 높았을 뿐이다.

예를 들어 鄭地가 싸운 합포해전에서 왜구는 대선 20척을 선봉으로 삼고 배마다 정예병 140명씩을 태웠다고 했다.³⁴⁾ 조선 초기의 대표적 군선인 猛船 중 大船의 승선인원이 80명 정도였다. 또 『세종실록지리지』 기재된 전국의 군선 분포에 의하면 대선은 오직 전라 좌도에만 8척이 배치되어 있었다.³⁵⁾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합포해전 당시 왜선의 규모는 대단한 것이었다.

이처럼 왜구가 대규모화 하고 대선까지 동원하게 되자 고려군은 크게 불

33) 원종 15년과 충렬왕 5년, 6년에 일본원정을 위해 고려가 건조한 함대는 대·중·소선 각기 300척씩 900척이었다.

34) “(鄭)地叩頭拜天 俄而風利 中流舉帆 船疾如飛 至朴頭洋 賊以大船二十艘爲先鋒 艘置勁卒百四十人”, 『고려사』 권113, 열전26, 鄭地.

35) 金在謹, 『한국의 배』, p. 114.

리해졌다. 더욱이 왜구가 항상 소형선으로 공격했다고 볼 수도 없다. 대선이 등선육박전술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대선은 많은 병사들을 태울 수 있으므로 왜구가 고려측과 맞먹는 혹은 보다 많은 대선을 가지고 백병전을 시도한다면 그 위력은 전보다 더욱 위협적이었다.

고려군이 백병전을 피하면서 이들을 제압하려면 역시 몇 배의 대선을 이용하여 적을 포위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려 수군의 전통적 해전술로 14세기의 왜구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선박과 병력의 부담이 가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고려 정부가 수군확충 사업에 착수할 때 총책 임자였던 최영이 왜구 소탕에 필요한 함선의 수를 大艦 800척, 혹은 2,000척으로 상정했던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³⁶⁾

李穡이 해방론을 주장하던 때에 고려가 바다를 포기하다시피 했던 것은 해방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같은 사정 때문이었다. 이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함선 건조와 수군의 증강이 필수적이었다. 정확한 사료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고려는 바로 수군 증강사업에 착수했던 것 같다. 그 편린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사료이다.

(공민왕 7년) 3월 기유일에 왜적이 角山 방어소에 침입하여 배 3백여 척에 불을 질렀다.³⁷⁾

이 사료는 매우 소략하고 불 탄 배 300여척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배들 혹은 그 중 상당수가 고려가 건조하던 병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角山은 지금의 경남 사천으로 예전부터 왜구방어 및 대일 교통의 요충이었고, 임진왜란 때도 이 일대에서 해전이 벌어졌다. 더욱이 300여척이란 『고려사』 전체를

36) 최영의 열전에서는 대선 800척이라고 했고, 『고려사』 兵志에서는 2천척이라고 했다. 兵志의 기록은 대선 800척을 포함한 전체 병선의 수를 말한다고 생각된다(『고려사』 권83, 지37, 병3, 船軍, 권113, 열전26, 崔瑩).

37)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7년 3월 기유.

뒤져도 발견하기 드문 대단한 수량인데, 일반 어선이나 민간선박이 이 정도로 밀집해 있기는 쉽지 않다. 이 배들은 고려가 수군 강화를 위해 건조하거나 집결시켜 놓은 병선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고려로써는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수군 증강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바로 다음 해부터 홍건적의 침입을 비롯하여 쉴새없이 외침이 시작되기 때문이다.³⁸⁾ 홍건적의 침입은 1359년부터 1362년까지 지속되었고, 1362년에는 나하추의 침입, 1364년에는 덕흥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쟁은 큰 후유증을 남겼다. 그렇지 않아도 12세기 이후로 전통적 토지, 조세와 재정체제가 흔들리면서 군사제도가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시에도 쉽지 않은 수군증강을 병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角山 사건은 사료가 불충분하므로 예외로 한다고 해도 이 시기에 고려가 해방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또 있다. 전술적 충분한 함대를 마련할 수 없었던 고려였지만, 왜구를 본격적으로 섬멸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조운로의 안전은 확보해야 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정예 함대를 만들어 질을 높여보는 방법이었다.

이런 취지에서 두 가지 시도가 행해졌다. 하나는 중국에서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공민왕 7년 7월) 그때 왜적의 방해로 인하여 수상 운수가 통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인 張仁甫 등 6명을 都綱으로 삼고 그들에게 각각 唐船 1척과 병졸 1백 50명씩을 주어서 전라도의 벼를 수송하고 있었는데 왜적이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서 이것을 태워 버렸으며 우리 군사는 패전하여 사상이 대단히 많았다.³⁹⁾

38) 이 점은 張學根씨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朝鮮時代海洋防衛史』).

39) “時倭寇爲梗漕運不通 以漢人張仁甫等六人爲都綱 各授唐船一艘 戰卒百五十人 漕全羅稅租 賊乘風縱火焚之 我師敗績 死傷甚多”, 『고려사』 권39, 세기39, 공민왕2, 공민왕 7년 7월 입술.

흥미로운 사실은 이 패전이 角山 방어소에서 배 300여척이 왜구에게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 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다. 중국인 張仁甫 등은 전함 건조사업 동안 부족한 수군을 보충하기 위해 고용한 용병이었거나 혹은 角山 사건으로 수군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중국 용병을 고용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唐船까지 고용한 이 부대도 왜구에게 패해 버렸다. 다음에 시도한 방법은 엘리트 병사로 구성된 정예 함대를 만들어 조운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공민왕 13년 개경의 동서강과 강화, 교동 지역의 선군을 선발하여 80척의 함대를 구성했다.⁴⁰⁾ 동서강과 강화, 교동은 수도 개경을 방어하는 최요충이었으므로 최고 수준의 함대와 병사들이었음에 틀림없다. 여기에 더하여 고려군 중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동북면의 무사까지 전투병으로 승선시켰다.⁴¹⁾ 邊光秀가 지휘하는 이 함대는 적극적으로 왜구와 맞섰는데, 내포에서 50여척의 왜선과 싸우다가 대패하고 말았다.⁴²⁾

이 두 번의 패전으로 수군 증강 대신 고려 수군의 질적 강화를 통해 왜구를 격퇴해 보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고려로서는 고려의 전통적 전술적 체제에 맞추어 대함대를 건조하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전술체제를 개발하여 고려 수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었다.



40) 『고려사』 권114, 열전27 邊光秀.

41) 위의 주.

42)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3년 3월 갑진, 권114, 열전27, 邊光秀.

4. 공민왕 후반의 수군증강 사업과 戰術 변화

(1) 최영의 함대증설 사업과 그 한계

邊光秀의 패전 이후 고려의 해상방어 상황은 최악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왜구는 치열해 졌다. 왜구의 침공이 시작된 1350년부터 1369년까지 20년 동안 왜구의 침입관계기사는 77개, 침입지역은 100여 개소였지만, 1370년에서 1379년의 10년 간 왜구 침입기사는 175개, 침입장소는 290여 개소에 달했다.⁴³⁾ 피해도 점점 충격적이 되었다. 공민왕 12년 213척의 함대가 교동을 점거하고 수안현을 약탈했다.⁴⁴⁾ 공민왕 14년에는 예성강에 들어와 병선 40척을 불살랐고, 다음 해에는 교동에 장기주둔하였다.⁴⁵⁾ 22년에는 해주에 침입하여 목사를 살해했으며,⁴⁶⁾ 개경에서 하루길인 白州 金谷驛을 약탈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함대증설 사업에 착수할 수 없었던 것은 워낙 대규모의 함대를 건조해야 하는데다가 북방정세가 안정되지 않아 수군 증강에 전력투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방정세가 안정되자 고려는 바로 왜구 격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시발점이 공민왕 22년에 올린 禹玄寶 등의 상소였다.⁴⁷⁾

공민왕 22년의 함대건설사업은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첫째는 충분한 함대의 확보로 대선 800척, 전체 함선 2,000척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여·원 연합군의 일본원정 때의 함대 규모를 초과하는 엄청난 규모였

43) 오봉근·손영중, 1991, 『조선수군사』, 사회과학출판사(백산자료원 재출판), pp. 151~153.

44)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4월 기미.

45) 『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 14년 3월 경신, 4월 기해, 동왕 15년 5월 을사.

46) 『고려사』 권44, 세가44, 공민왕 22년 9월 신축.

47) 『고려사』 권83, 지37, 병3, 船軍.

다. 공민왕은 최영을 六道都巡察使로 임명하고 軍戶의 징발과 전함 건조에 거의 전권을 주었다.⁴⁸⁾

둘째는 수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작업으로 명나라에 화약과 화기 제공을 부탁하였다.⁴⁹⁾

그러나 화약의 도입과 화기의 개발은 명의 태도와 성과 모두가 불확실했으므로⁵⁰⁾ 공민왕 22년의 수군강화 사업의 증점은 전통적 전술에 기초한 함대증설에 있었다. 2,000척이라는 규모는 당시의 왜구의 규모와 양국 함대의 전술적 역량을 계산해서 내린 수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나중에 최영이 이 목표수량을 채우지 못해서 왜구 토벌에 실패했다고 아쉬워했던 사실로도 증명이 된다.⁵¹⁾

그러나 田制의 문란과 군제의 붕괴가 심각하고, 오랜 전란이 지속된 상태에서 이 같은 대형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았다.

六道都巡察使 최영이 배 2,000척을 만들어 6도의 군대를 시켜 배를 타고 나가서 왜적을 잡게 하려고 하니 백성들이 겁내어 집을 허물어 버리고 병역을 도피하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5~6명이나 되었다.⁵²⁾

이런 사업을 강행해야 하느냐 중단해야 하느냐는 것은 해답을 내리기 힘든 난제였다. 왜구를 격퇴하지 못하면 피해는 더 커진다는 입장과 국가와 백성이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은 다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압적이고, 급하게 수군을 증강하면 목표수량을 채워도 수군의 질과 사기가

48)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4, 공민왕 22년 10월.

49) 『고려사』 권44, 세가44, 공민왕4, 공민왕 22년 11월.

50) 명은 고려의 화약제공 요청을 거부했다(『고려사』 권44, 세가44, 공민왕 23년 6월). 그 후 태도를 바꿔 고려에 염초와 유황을 제공했다는 기록도 있으나 그 성사 여부와 성과는 불확실하다(許善道,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 『朝鮮時代 火藥兵器史 研究』, 一潮閣, 1994, p. 12).

51) 『고려사』 권113, 열전26, 최영.

52) 『고려사』 권83, 지37, 병3, 船軍.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했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업은 1년도 가지 않아서 다시 양보다는 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정적 계기가 공민왕 23년에 올린 李禧와 鄭准提(鄭地)의 건의였다.

(공민왕) 23년 정월에 검교 중랑장 李禧가 글을 올리기를 “지금 왜구의 침입이 치열해 지는데 배를 조종할 줄 모르는 煙戶民을 물에서 싸우게 하므로 매번 패배하게 됩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자라났으므로 일찍이 수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바다 섬에 나가 사는 사람 또는 배 조종에 익숙하고 자원해 나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적을 친다면 5년 동안이면 바다에서 적을 완전히 숙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⁵³⁾

왕이(李禧의 상소를 읽고; 필자 주) 개연히 이르기를, “초야의 신하인 李禧 같은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이 계책을 아뢰는데, 百官과 衛士 가운데 일찍이 한 사람도 李禧 같은 자가 없었더냐” 하였다. 위사 柳爰廷이 나아가서 아뢰기를, “중랑장 鄭准提가 일찍이 왜구를 평정할 계책을 초고로 만들어 두었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准提가 마침 궁전 섬돌에서 侍立하고 있었으므로 왕이 돌아보고 물으니, 准提가 즉시 전대 안에서 찾아 올랐다. 왕이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李禧를 양광도 안무사로, 鄭准提를 전라도 안무사로 삼아, 倭人追捕萬戶를 겸하게 하였다. 准提는 후에 이름을 地로 고쳤다.⁵⁴⁾

李禧와 鄭地의 건의에 의해 최영이 추진하던 2,000척 건조사업은 중단되었다.⁵⁵⁾ 그런데 이때 李禧와 鄭地의 건의가 기존의 함대건설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음의 기사에 의하면 그간의 함대건설사업의 성과로 고려는 어느 정도의 병선을 확보하고 있었고, 李禧와 鄭地는 이 함

53) 앞의 주.

54)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4, 공민왕 23년 정월 및 『고려사』 권113, 열전 26 鄭地.

55) 『고려사』 권83, 지37, 병3, 船軍.

대의 일부를 인수했던 것 같다.

최영이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6도 도통사로 있으면서 대대적으로 큰 병선 8백여 척을 건조해 해적을 깨끗이 소탕하려 하였었다. 그러나 뜻밖에 李海 등이 분별 없이 선왕에게 청해 그 병선을 나눠 가지고 패전해 전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孫光裕는 강 어구에서 전함을 거느리고 있다가 한 번 왜적을 만나자 거의 다 불 태워 버렸다.⁵⁶⁾”

이 기사에 등장하는 李海는 곧 李禧라고 생각된다. 孫光裕는 淸梁(인천과 강화부근)에서 왜구에게 패해 병선 50척과 병사 1천을 잃는데,⁵⁷⁾ 이 함대도 최영이 건조한 함대였던 것이다.

당시 완성된 전함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李禧와 鄭地의 건의는 물에 익숙한 지역의 주민을 동원하고, 전술훈련을 통해 수군의 질적 강화를 이룬다면 지금까지 건조한 함대만으로도 왜구를 격퇴할 수 있다는 절충안이었던 것이다.

(2) 화기의 도입과 수군 전력의 강화

공민왕 23년에 李禧와 鄭地는 倭人追捕萬戶로 임명되어 각기 양광도와 전라도로 파견되었다. 李禧는 자신의 큰소리와 달리 패전해 버렸지만, 정지가 추진한 새로운 수군 강화사업은 성공해서 우왕 6년과 8년의 鎭浦, 合浦 해전에서 왜구의 대함대를 격멸하는 수훈을 세운다.⁵⁸⁾ 이후 해전은 간혹 일진일퇴의 양상을 띠기는 하지만, 수군의 능력과 해방전술에 자신감을 불어주어, 조선 건국 후 수군제도의 개혁을 낳게 하였고, 조선 수군의 해전에

56) 『고려사』 권113, 열전26, 최영.

57) 위의 주.

58) 『고려사』 권134, 열전47, 우왕 6년 8월, 권114, 열전27 羅世, 『고려사절요』 권31, 우왕 8년 10월.

서 우위를 확고하게 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렇다면 이때 李禧와 정지가 올린 새로운 대책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고려사』에서는 물에 익숙지 않은 육지 주민을 강제로 징발하지 말고, 바다나 섬에 사는 물에 익숙한 인물들로 부대를 편성하여 왜구와 싸우게 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⁹⁾ 그러나 이 기록은 문관들에 의해 축약된 것으로 기록이 피상적이고 간략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 실제 상소의 내용도 수십 개조가 넘었다.⁶⁰⁾

우선 연해민이나 섬 주민으로 수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자. 이 말이 승선인원 전부를 연해민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없다. 당시의 해상전투의 양상은 육지전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선인원은 기능적으로 배를 조종하는 선원(水夫)과 전투병으로 이원화된다. 물론 선원도 전투시에는 전투병으로 전환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같은 구분이 발생한다.

배를 다루는 기술은 전문적 기술이므로 선원까지 육지민으로 충당하는 데는 한계와 정도가 있다. 아무리 무리한 충원을 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연호민으로 충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李禧와 鄭地의 건의는 일반 전투병을 연해민으로 충당하자는 의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도 어폐가 있다. 일반 전투병이 해상경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전투력의 차이가 올 수는 있다. 그 외 해상에서만 직면하는 특수한 상황과 기능도 존재했을 것이고, 해상생활의 적응력과 질병도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전투병을 모두 연해민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승선인원 모두를 연해민으로 충당하면 당장 수군과 병선의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상에 익숙한 전투병만으로는 절반이 넘는 병력 감소분을 상쇄할 정도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내기는 어렵다.

59) 육군본부, 『한국군체사』, p. 107.

60) 『고려사』 권113, 열전 26, 鄭地.

이 점은 왜구나 그 후의 일본군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더 심했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육상전투를 중시했고 해전도 백병전으로 수행했으므로 전국시대까지도 순수한 해적단 외는 전문적 수군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해적단의 규모를 넘어선 편제를 할 때는 선상전투병과 육군의 구분이 분명치 않았다.⁶¹⁾

사료에 의하면 鄭地가 구상한 물에 익숙한 수군이란 일종의 특수부대의 양성책이었다.

경기도 관찰사가 좌·우도 수군절제사 문文에 의거하여 左右邊에 속해 있는 전 만호 金世甫 등의 호소를 보고하였다. “우리들은 본시 전라도 바다가 여러 고을에 있었사운데, 경인년 이후로 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매 나라에서 우리들을 나누어 파견하여, 병선을 만들어 가지고 州郡의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신년(우왕 6)에 鎭浦의 적과 계해년(우왕 9) 長浦의 적을 맞아 피를 밟고 힘껏 싸워, 그 왜적의 銳鋒을 꺾었으므로, 연해의 백성들이 비로소 다시 생업을 편안히 할 수 있었습니다.”⁶²⁾

이 기사는 세종 즉위년 교동에 배치한 長番軍士들의 상소인데, 이들은 교동에 배치되기 전 진포해전과 합포해전에서 용맹을 떨친 정예부대였다.⁶³⁾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이들은 주로 목포와 나주에서 선발한 군인들이었다고 한다.⁶⁴⁾ 그런데 鄭地는 본관이 나주이고, 공민왕 23년 그를

61) 일본 전국시대나 임진왜란 때도 일본 수군과 육상 전투병은 계속 호환되었다. 진주성 공격 때도 수군이 상륙하여 공성전에 참가하였다(이민웅, 『임진왜란해전사』, p. 210).

62) “京畿觀察使據左右道水軍節制使呈 左右邊屬前萬戶金世甫等稱訴 我等本在全羅道沿海諸郡 庚寅以後 倭賊始興 國家分遣我等 作兵船 俾令與州郡兵禦倭 庚申鎭浦之賊 癸亥長浦之賊 躐血力戰 挫其銳鋒 沿海人民 始復安業”, 『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 9월 乙亥.

63) 이들의 성분과 교동에 배치된 사연에 대해서는 임용환, 2004. 9, 『14~15세기 喬桐의 군사적 기능과 그 변화』(『인천학연구』 3), pp. 19~21 참조.

64)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교동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전라도 안무사가 되었다. 그리고 진포와 합포해전은 다 정지가 지휘한 전투였다. 그렇다면 교동의 장변군사들은 공민왕 23년부터 정지가 양성한 ‘바다에 익숙한 병사들’이었음이 분명하다.⁶⁵⁾

그런데 위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항상 그들만의 단위부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州郡에 나누어 파견되어 병선을 제작하고, 州郡의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막았다”고 했다. 州郡에 선박제조 기술자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들이 제작한 병선이란 새로운 전술에 맞추어 병선에 탑재하는 기계와 그에 맞춘 개량한 병선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이들이 새로운 해상 전술 및 기계의 보급과 훈련까지 담당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들이 分遣되어 州郡의 군사와 함께 싸웠다는 것은 모든 승선인원을 연해민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은 일부가 개량한 전함을 몰고, 기계를 운용하면서 해상전투에서 특수한 기능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교동의 장변군사들은 항상 兵船을 타며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주임무였다는 기록도⁶⁶⁾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담당한 새로운 병선과 기계, 전술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신(조석문; 필자 주)이 듣건대 前朝말기에 왜적이 침략하였으나 그때 兵器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솟제 대적하지를 못했고, 또 우리나라 兵船은 크고 느린데 왜선은 작고 가벼워 빠르기 때문에 언제나 갑자기 우리 배의 밑으로 들어와서 배 밑바닥을 도끼로써 구멍을 뚫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군사의 실패가 많았는데, 船軍 金仍吉이란 자가 있어서 謀策을 바쳐서 拒鐵과 拘鐵을 만들어, 왜선으로 하여금 들어 왔다가 물러가지 못하게 하고, 또 철질러를 만들어 배 안에 던지니, 이로부터 그런 걱정은 드디어 없어졌다고 합니다.⁶⁷⁾

65) 이 부대의 특성과 편성과정에 대해서는 임용환, 2004. 9, 『14~15세기 喬桐의 군사적 기능과 그 변화』(『인천학연구』 3, 인천학연구원) 참조.

66) 『세종실록』 권95, 세종 24년 3월 癸亥.

여기서 말한 拒鐵과 拘鐵이란 일종의 지지대와 같고리 종류라고 생각된다. 접근하는 왜선을 拘鐵로 나포하는 동시에 拒鐵로 왜선이 뱃전에 붙지 못하게 저지한다. 철질러는 살상무기도 되고, 배를 파괴하거나 병사의 행동을 제약하는 무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전투에서는 포착된 배를 향해 화살, 투석 공격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사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拒鐵과 拘鐵이 고려 말에 처음 등장한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武經總要』에도 같고리는 해전의 대표적인 무기로 해전용 무기 목록에 첫 번 째로 등장하며, 그 기원도 춘추전국시대부터였다고 한다.⁶⁷⁾ 그러므로 이 하나의 아이디어와 무기만으로 왜구와의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석문은 성종에게 전술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고려 말의 해전사에서 계기적인 사건을 진술한 것 뿐이다. 또 실록의 기록이 성종과 조석문의 대화의 전문이 아니라 요약문이란 점을 참작하면 조석문의 진술은 고려 말에 왜구의 등선육박전술에 대항해서 다양한 병기와 기술이 개발, 혹은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拒鐵과 拘鐵이라는 무기는 그 자체가 신무기, 신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전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제작하고, 상대에 맞추어 이를 적용한 전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지가 양성한 교동 수군은 평소에는 이런 기술과 기계를 보급하고, 실전에서는 이를 운용하여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다. 특히 조석문의 진술은 이때의 새로운 전술이 소형선을 이용하여 등선을 시도하는 왜구를 저지, 공격하는 데에 전술의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확연한 전력향상을 이루기는 어려웠다. 해전 전문병사의 양성과 전술, 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수군의 전술운용 능력

67) 『성종실록』 권47, 성종 5년 9월 계해, 9:145.

68) “舟戰之具 謂之鉤 拒退則鉤之 進則拒之”, 『武經總要前集』 卷11, 水戰.

과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해도 이 같은 해전술의 도입과 병기 개량, 정예, 전문부대의 운영이란 사실 전쟁사적 관점에서 보면 어느 시대에나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방법으로써 고려의 전통적 전술체제가 지닌 약점을 단번에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기록으로 증명이 된다. 이회는 패전하여 기록에서 사라졌다. 정지도 처음에는 패전까지는 당하지 않았어도 진포해전 전까지는 육전에서 몇 번의 승리를 거두었을 뿐 해전에서 뚜렷한 전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최영도 우왕 대 중반까지도 신전술의 효용에 비관적이어서 다시 130여척의 대선단을 건조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⁶⁹⁾

이런 상황에서 고려 수군의 전력에 획기적 전기가 된 것은 화약제조 기술과 화약무기의 개발이었다. 화약무기는 우왕 3년 화통도감 설치를 계기로 생산되기 시작해서 우왕 6년 진포해전에서부터 위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최무선이 제작한 화약무기는 大將軍, 二將軍, 三將軍, 六花, 石砲, 火砲, 信砲, 火桶, 火箭, 鐵翎箭, 皮翎箭, 蒺藜砲, 鐵彈子, 穿山, 五龍箭, 流火, 走火, 觸天火 등이었다. 이 화기들의 성능 및 용도는 분명치 않지만 대체로 사격무기와 화염무기, 신호용 무기 등으로 분류된다.⁷⁰⁾

고려말 해전사에서 화기의 개발이 획기적 전기가 되었음은 재론할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당시의 기록과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충분히 지적되어 있는 바이다.⁷¹⁾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문점도 많다.

우선 최무선이 제작한 화기의 성능과 효용이다. 화포의 사거리가 200보를 넘어선 것은 태종~세종 연간에 이루어졌다.⁷²⁾ 즉 원거리에서 성벽이나 선체를 부술 수 있는 강력한 화포는 고려 말에는 존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무선 당시의 화기전술을 화약을 이용하여 배를 불태우는

69) 『고려사』 권113, 열전26, 최영.

70)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4월 壬午.

71) 許善道, 앞의 책, pp. 12~19.

72) 許善道, 앞의 책, p. 23.

火攻 위주였다고 짐작하고,⁷³⁾ 최무선이 제작했다는 20여종의 화기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화기의 도입이 과연 고려 수군의 전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겠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해는 화기의 전술적 기능을 화포 혹은 화기의 개별적 성능이나 파괴력에만 국한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화기의 주기능이라고 하면 화포에 의한 공격 즉 적선에 대한 파괴력과 대량살상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통적 해전에서 화기의 기능은 화포에 국한되지 않는다.

왜구와의 해전에서 왜선에 대한 공격루트는 크게 2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등거리에 있는 왜선이나 대형 왜선에 대한 공격으로 선체를 파괴하거나 화살, 유산탄을 날리는 화포공격은 이런 경우에 매우 유용하겠다. 하지만 이 시기 화포의 위력이나 사거리로 볼 때 화포에 의한 포격의 유용성에는 확실히 의문이 든다.

또 하나의 공격은 등선을 시도하는 왜구의 소형선에 대한 공격이다. 여기서 화포를 사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같고리로 왜선을 결박한다고 해도 소형선으로 접근하는 왜선을 발사속도도 느리고 포신의 상하 및 좌우이동도 불가능한 당시의 화포로 파괴하기란 화살로 적중시키기 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투에서는 火桶과 火毬, 火蒺藜 類의 무기가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紀效新書』에서는 이런 무기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적선이 선박 가장자리로 접근해 오면 배 위에서는 火桶과 噴桶, 火箭, 瓦罐 크고 작은 돌맹이 및 매끄럽고 습한 물건을 던지며, 돛 위와 꼬리에 있는 자들은 犁頭鏢를 던진다.⁷⁴⁾

73) 許善道, 앞의 책, p. 13, 주44).

여기 등장하는 火桶은 목통에 화약을 넣고 던져서 배를 폭발하는 무기이다. 이는 삽시간에 배를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을 지녔으며 백발백중이라고 칭찬하였다. 噴桶도 이런 무기의 일종인데 일종의 시한장치를 해서 점화방식을 개량한 것이다. 瓦罐은 蒺藜砲라고 하는데, 안에 철질려를 넣고 화약으로 폭발시켜 분산시키는 것이며, 犁頭鏢는 배에 구멍을 내는 기구이다.⁷⁵⁾

『紀效新書』는 16세기의 병서이고, 噴桶은 火桶을 개량한 무기이고 사용법이 좀 까다로우서 14세기에 사용되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전술은 기본적으로는 접근한 왜선에 화약통을 던져 배를 태우고, 蒺藜를 뿌려 적의 기동을 제한하는 방식을 개량한 것으로 이 전술 자체는 오래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미 11세기부터 중국에서는 화약을 이용한 火毯, 火蒺藜, 震天雷 등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⁷⁶⁾ 최무선이 만들었다는 무기목록에도 火桶, 蒺藜砲가 보이기 때문이다.

『紀效新書』에도 근접한 적선에 대한 전투방식은 오직 이 전술만이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이 전술은 왜구와 같이 등선육박전술을 주무기로 하는 적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전술이었다. 이 전술의 위력은 일본에서도 증명되었는데, 전국시대 말기인 1576년 7월 지금의 오오사카 성이 위치한 石山本願寺를 공략하던 오다 노부나가 군은 本願寺를 구원하러 온 모리씨의 수군과 대적하게 되었다. 木津川에서 벌어진 水戰에서 노부나가의 水軍은 전통적인 등선육박전술로 맞섰지만, 모리의 수군은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항아리에 화약을 담아 던져 폭발시키는 焙烙라는 화기를 던져 넣어 노부나가군의 선박을 불사름으로서 대승을 거두었다.⁷⁷⁾ 焙烙는 곧 火桶과 같은 종류의 무기로서 화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무기와 전술이 등선육박전술을 시

74) 『紀效新書』 권12, 舟師篇 水操解(國防軍史研究所, 하권, p. 157).

75) 『紀效新書』 권12, 舟師篇 및 『兵學指南演義』(國防軍史研究所, III권, pp. 197~200).

76) 육군본부, 『한국군제사(조선전기편)』, p. 388.

77) 『織田信長』(學研社, 歴史群像), p. 63.

도하는 적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이며 위력적인 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火燭, 蒺藜砲와 같은 火器와 신전술의 도입은 고려의 대선 중심의 전술체제가 지니는 근접전에서 열세를 보완할 뿐 아니라 대선 체제가 근접전에서도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는 데서 고려 수군의 전술능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대선은 충분한 화기와 화약을 적재할 수 있고, 충분한 병력을 탑재하고, 병사들간의 조직적인 전투를 전개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고려 말에 등장한 화기의 진정한 위력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정지가 양성한 정예 수군과 이들을 기간요원을 하여 보급한 해상전술의 효용성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극대화 될 수 있었다. 조석문이 성종에게 진술한 拒鐵·拘鐵의 효용 역시 이같은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당시 화기는 조작성이 어렵고 바다에서는 사용하기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전투력이 뛰어나고 해전에도 익숙한 전문부대가 필요했다. 이 부대는 이러한 요건과도 잘 맞았기 때문에 화기가 개발되면서 해전 전문부대로서의 특수성이 배가 되었으며,⁷⁸⁾ 최정예 부대로서의 위상 역시 더욱 높아졌던 것 같다.⁷⁹⁾

78) 역사적으로 해상에서의 전투를 담당하는 특수부대, 즉 해병(marine)의 출현은 화기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기가 개발되기 전에 해상전과 육상전의 전투방식은 별 차이가 없었으므로 해상전투를 위한 별도의 부대를 양성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화기가 개발되면서 해상에서의 화기사용은 육지와는 다른 특수한 기능을 요구했다. 또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되면서 병사들이 장기항해를 견뎌야 했다. 이런 필요에 의해 창설된 부대가 해병이다. 정지가 양성한 교동수군은 이런 점에서 보면 해병의 개념에 가까운 우리 역사상의 새로운 부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79) 이 부대는 조선초기까지도 최고의 수군으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조선 초기에 이들을 장변군사로 편성해서 교동에 주둔시켰다. 이들이 주축이 된 경기우수영 함대는 당시의 유일한 공격함대로서 왜구가 침입하면 다른 함대들은 각기 지역을 방어하고, 이 함대가 출동하여 왜구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임용한, 『14~15세기 喬桐의 군사적 기능과 그 변화』, p. 18).

이 같은 개혁의 결과로 고려 수군의 전력은 급속히 상승하였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합포해전이다.

그때 적은 큰 배 20척으로 선봉을 삼고 배마다 강병 140명씩을 실었다. 정지는 진공하여 우선 이것을 격파하니 시체가 바다를 덮었다. 계속 남은 적을 쏘니 화살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이리하여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또 화포를 발사해 적선 17척을 불살랐다.⁸⁰⁾

이 기사에 의하면 화포를 발사해 17척을 불살랐다고 하였다. 이 17척은 선봉으로 돌격해 온 적의 대선 20척 중 17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사를 자세히 보면 이 배를 불사른 기사는 화살로 적을 대패시켰다는 기사 다음에 나온다. 즉 공격해 오는 적선에 포격을 가해 침몰시킨 것이 아니라 적선을 제압하거나 적군을 격퇴시킨 후에 배를 화포로 파괴한 것이다. 또 불살랐다는 표현으로 보아 포탄이 아닌 화염을 방사하여 적선을 태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전투의 핵심은 정예병을 무려 140명씩을 적재하고 접근전을 감행하는 적의 예봉을 격파하는 부분인데, 이 장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기사로 보면 고려군이 이들과 정면대결을 벌여 격파한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접근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최종적으로 적의 대선을 거의 불살랐다는 전황을 보면 火桶과 같은 화기를 이용한 근거리 접전능력의 향상이 합포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우왕 13년에 정지는 일본정벌을 건의하였는데, 이 상소에서 그는 “지금의 우리 수군은 모두 수전에 능숙해 신사년의 왜국 정벌 때에 夢漢軍이 배에 익숙지 못하였던 것과는 비할 바 아닙니다”라고 공언하였다.⁸¹⁾ 이것은 당시 변화된 고려 수군의 전력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80) 賊以大船二十艘爲先鋒 艘置勁卒百四十人 地進攻先敗之 浮屍蔽海 又射餘賊 應弦輒倒 遂大敗之 發火炮焚賊船十七艘. 『고려사』 권113, 열전26, 鄭地.

81) 『고려사』 권113, 열전26, 鄭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고려 수군이 왜구를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던 것은 아니다. 조선 초기까지의 기록을 보아도 왜구는 계속 쳐들어 왔으며 그들과의 전투는 일진일퇴의 양상을 띠었다. 실제로 우왕 10년에 우왕은 정지가 海道元帥가 되고 증강된 수군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왜구 격퇴에 큰 실효가 없다고 책망한 적도 있다.⁸²⁾ 따라서 이 시기의 수군 개혁의 성과가 해전에서 왜구를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규모 해적단과의 전투에 맞추어져 있고 등선육박전술에 취약하던 고려 수군의 약점을 개선하고, 왜구와의 전면전이 가능한 전술체제와 자신감을 갖추게 하였고, 차후로 진행되는 수군 개혁의 방향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이 있었기에 조선에서도 전통적인 대선중심 체제의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대대적인 수군 증강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15, 16세기까지도 수군제의 개혁은 이러한 전술기초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임진왜란 때에 큰 위력을 발휘한 대형전함인 판옥선의 등장과 화포의 개량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14세기 고려의 수군전술 개혁과 화기 도입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였다.

5. 맺 음 말

삼국시대 이래로 고려군의 전통적 장기는 기병과 활이었다. 활은 장병공격의 이점이 있지만, 단병접전 능력이 떨어진다. 이 점을 기병이 보완하였다. 그러나 해전에서는 기병을 사용할 수 없고, 사격의 정확성과 집중도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 수군은 전통적으로 대선 중심의 수전전술을 사용하였다. 대선은 병력과 기계를 밀

82) 위의 주.

집시키고, 다양한 무기와 기계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투를 가능하게 하므로, 고려군의 장기인 사격효과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병접전 능력을 조직력과 기계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반해 왜구는 자신들의 장기인 단병접전 능력에 의존한 등선육박전술을 장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왜구들은 기동력이 좋은 소형쾌속선으로 접근하여 등선육박전술을 시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왜구라고 언제나 소형선만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고려 후기에는 고려의 대선에 비해 손색이 없는 대형선을 동원하여 공격하기도 하였다.

장병공격의 위력과 효율성은 해상에서는 더욱 저하되고, 대선은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려의 전통적 전술로 왜구와 싸울 때는 병력과 함선에서 충분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고려 중기까지도 왜구나 여진족은 소규모 해적단 수준이었기 때문에 해상에서 이들을 격퇴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14세기부터 왜구가 양적, 질적으로 과거의 수준을 넘어서 대규모로 침공하게 되고, 고려의 전함과 맞먹는 대선까지 동원하게 되자 고려의 전통적 대선 중심체제는 금새 큰 약점을 드러냈다. 대규모화한 왜구를 제압하려면 고려는 몇 배의 해상전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원이 망하고, 홍건적과 여진족의 침입이 이어짐에 따라 고려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수군 증강에 전력투구를 할 수 없었다.

고려는 해방전술을 포기하고 육방전술로 대체했으나 육방전술로는 왜구를 저지할 수가 없어 왜구에 의한 피해와 침공은 날로 증가하였다. 북쪽의 정세가 안정된 공민왕 22년부터 고려는 해방전술을 다시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전술이 지닌 한계 때문에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2,000척의 함대가 필요하다는 엄청난 계산이 나왔다. 고려는 최영을 책임자로 대함대 건설에 착수했으나 무모한 함대건설과 수군증강 사업은 수군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공민왕 23년에 이회와 정지는 병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대응책을 비판하

고 수군의 전력을 강화하여 보다 적은 병력과 비용으로 왜구를 격퇴하자는 제안을 올린다. 정지의 방안은 물에 익숙한 연해민으로 정예부대를 구성하고 전술과 무기를 개발하며, 이들은 각지에 파견해서 전술과 병선, 기계를 제작, 보급하고 병사를 훈련시켜 전체 수군의 전력향상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왜구와의 전력격차를 좁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왕 3년부터 고려가 독자적으로 화약을 제조하고, 화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됨으로써 전력강화사업에 전환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시기의 화포는 화력이 약하고 사거리가 짧아서 화포사격만으로 등거리에서 적선을 파괴하거나 제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화약의 효과는 화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화기가 훨씬 개량된 16세기에도 해전에서 화포의 위력이 제한적이었다. 실제 화약과 화기가 해전에 미친 영향은 전통적 전술체제 및 무기와 결합할 때 그 전술의 위력을 배가 시킨다는 데에 있다. 특히 화약은 단병접전 능력이 떨어지는 고려군이나 중국군이 근접해서 등선을 시도하는 왜구의 배를 격파하고, 근접거리에서 왜적에 대한 공격력과 살상력을 크게 증가시켰다.

결국 14세기 연해민을 동원한 해전술의 개발과 정예부대의 육성, 이들을 통한 전술과 병기의 보급이라는 정책은 화기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소재와 결합하여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특히 火桶·蒺藜砲 등을 이용한 화기 전술의 도입은 왜구의 등선육박전술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주었으며, 이로 인해 고려의 전통적 대선중심 체제가 다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화기의 탑재, 각종 기구의 사용, 화기와 기구를 이용한 조직적 공격에는 대선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량된 고려의 수군은 진포, 합포해전에서 왜구를 격파하면서 해전에서의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특히 합포해전에서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대형선을 앞세워 돌격해 오는 왜구를 섬멸하여 해전에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고려 말기에 새로운 성공을 거둔 고려 수군의 전술체제는 조선에도 이어졌다. 이것이 고려 말의 수군제 개혁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수군제를 대대적으로 확충, 정립하고, 고려 말의 수군 개혁의 방향을 받아들여 대선 중심체제를 유지하면서, 병선과 화기,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왜와의 전면전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조선 수군의 승리도 실제로는 이같이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05. 3. 2, 심사완료일 : 2005. 3. 26)

주제어 : 수군, 왜구, 화통, 수군전술, 공민왕

K C I

<ABSTRACT>

The Reformation of Naval System and Tactics in the Late of *Goryeo*

Lim, Yong-han

The *Goryeo* Navy had a tactics dependent on large sized battleship. Large battleship was profitable in arrow shooting, which was the *Goryeo* Army's Traditional Skill, and the use of war instruments. On the other hand, *Waegu*(倭寇) preferred to boarding tactics with small and rapid ship.

Since 1350, *Waegu* began to invade in *Goryeo* on large scale. The *Goryeo* Navy could not match them. In generally we have an idea that *Goryeo* failed to repulse invader because they flighted in land not sea. It is a miss understanding. The *Goryeo* Government knew to have to depend *Waegu* in the sea. But they could not do because *Waegu* overwhelmed the *Goryeo*'s Navy in scale, although the *Goryeo*'s Tactics depending bow and large ship requested more soldiers and ships.

At last, King *Gongmin*(恭愍王) attempted to build battleships. But the Traditional Tactics needed too many ship beyond nation's capacity. To solve this problem, it is required to device a new tactics that was able to increase navy's power, especially in supremacy to ascending *Waegu*.

Two plans were attempted. The first was employing marines from the coast province or island. They were dispatched for education of fighting skills and usage of new weapons to soldiers

The second way, more important, was using of firearms. A cannon was little useful. It's power was weak and it had short range. More important

weapons were the devices to attack enemies who intended to boarding. *Hwatong*(火桶) and *Jilryeo-po*(蒺藜砲) had good effects on attacking them, and compensated *Goryeo* navy's long timed weakness.

This reformation succeeded. The *Goryeo's* Naval Tactics depending large sized battleship was changed to very good system against the *Waegu*. The *Joseon* succeeded to this reformation course. It became the a primary factor for overcoming Japanese invasion in the 16th century.

Key Words : *Goryeo* Navy, *Waegu*, *Hwatong*, Traditional Tactics, King *Gongmin*

K C I